

원 지사 또 '인사독선'... 정치권 또 반발

자질 논란 고영권 정부부지사·김상협 연구원장 임명 인사청문 무력화·요식행위 전락... "도민·의회 무시"

자질 논란 속 지역사회 내에서 지명 철회 촉구가 제기된 고영권 정부부지사 예정자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예상대로 임명됐다. 이에 도내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민 무시' '인사 독선' 및 인사청문 무력화 비판과 함께 또다시 요식행위로 전락한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부각됐다.

원 지사는 1일 민선7기 세번째 정부부지사에 전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 고영권 변호사와 제11대 제주

연구원장에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인사청문을 통해 김 예정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 고 예정자에 대해서는 '미흡' 의견과 함께 원 지사에게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당부한 바 있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를 향해 두 예정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원 지사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정치권은 논쟁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

를 향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 즉각 철회와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도민의 얘기에 귀를 닫은 원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식이 다시 이뤄졌다"면서 "이제까지 제주도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도지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측근들의 자리 챙겨주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이제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지사는 전국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고 자랑하지만 서귀포시 등 여러 청문회의 부적격 결정을 보란듯이 엮어버린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어느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한때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에 협치와 소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원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원 지사는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제2공항 의견수렴한 道... 영향 미칠까

지난달 20일간 1600여건 접수 이달 검토 후 국토부에 전달 반대단체 '보여주기식'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자체 의견 수렴을 실시·완료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에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자체 실시해 수렴한 도민의견을 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국토부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

도는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 제2

공항 개발과 연계해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환경수용력 대응 방안,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315건의 의견이, 오프라인으로는 1300여건에 달하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 대부분은 제2공항 찬반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보여주기식 여론 수합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형태의 여론수렴을 할 수 없다고 큰소리쳐 온 원희룡 지사는 실제로는 정반대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게시판을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높은 파도 즐기는 서퍼들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중인 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유산축전 '숨길 순례단'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프로그램 중 1차 숨길 순례단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만성)는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1차 숨길 순례단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태풍 마이삭의 북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불의숨길 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태윤기자

제2공항 예산 473억 편성... 비판 목소리도

국토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 올해 예산보다 100억 늘어 반대단체 '시대착오적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이 473억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예산안을 오히려 확장 편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은 총 47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총 356

억2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32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후 올해 예산에는 전체 365억2000만원 중 36억2000만원만 반영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올해 반영하려던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온전히 반영한 것을 넘어 더 확대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정부의 제주 제2공항 예산 편성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 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전혀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473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9월 독서대전 모든 행사 비접촉 전환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비접촉·무관중 행사로 전환된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 독서문화 축제다. 7회째인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지금 우리, 책"을 주제로 제주도민예총,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 전국 일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소규모·제한적 대면 행사가 비접촉·무관중 원칙으로 운영된다.

담당(개막식), 필담(포럼), 놀담

(강연) 프로그램은 무관중으로 유튜브 중계가 이루어진다. 도내외 73개소에서 분산 개최 예정이던 만남(책담테아)은 연기됐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완화가 시 진행할 예정이다. 문예회관에서 펼쳐지는 보담(전시) 프로그램은 비접촉·제한적 방문 형태로 가동된다.

제주시는 "전 행사를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새롭게 운영해 코로나19 이후 책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http://korearf.kpipa.or.kr>) 참고.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매년 양식장 고수온 피해 서귀포시, 예방물품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하절기 육상양식장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양식장 126개소에 1억6800만원을 투입해 고수

온대비 피해예방 물품 지원사업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등을 추진했다.

양식장 고수온대비 피해예방 물품 지원 사업은 영양제, 면역증강제 등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개소당 500만원이다. 올해 18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위해생물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사업에 108개소·7800만원을 지원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토종기업

긴약속 큰정성 아름다운 손길!

우리 제주상조는 출동에서 장지까지 장례의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제주상조(주)**
24시 콜센터 1899-3412

바로 전화주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절상담 **010.3693.2400**
(장례복지사 : 현영훈)

우리제주상조(주) | 제주시 승천로 62(5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